문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분석

고황도단 포스트모더니즘-제1세계의 문화논리

모순자체가 상품화된 예술

후기자본주의 모순구조에 대한 총체적 통찰 결여

외래문화 수용, 우리 기준의 여과장치 정립돼야

Ⅰ. 머릿말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가장 유행한 용어는 아마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인 것 같다. 심지어 신발 광고에까지 등장하는 이 용어를 지켜보는 지식인들의 눈길은 당혹감으로 가득차있다. 이 당혹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는 기간의 문화사조 유입에서 우리가 보여왔던 문화사대주의적 태도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하겠다. 원산지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이렇다 할 합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우리가 처한 모순을 명쾌하게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무분별하게 수입·적용·모방하는 무리들의 천박한 태도가 지금의 이 혼란상을 빚어낸 주범이라 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무분별하게 이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실체를 제대로 분석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구분을 하지 않은 채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철학논의, 사회이론, 문학예술론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이 각각 변별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구분작업이 생략된 채 논의되었고, 또 후기구조주의와 해체론과도 무차별적으로 혼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 짧은 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쟝-프랑소와 리 오 따 르 (Jean - Francois Lyotard)의 철학논의나 쟝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사회이론까지 모두 다룰 수는 없기에 일단 논의를 문학예술론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국한 한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문학분야에서의 논의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건축등 다른 예술분야에서보다 활발하기 때문이다.

Ⅱ. 몸말

제임슨(Fredric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라는 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에른스트 만델(Ernst Mandel)이 '후기산업사회'에서 제시한 자본주의의 발전형태에 따른 시대분석을 적용해 설명한다. 맑시스트로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제임슨은 만델이 제시한 자본주의 발달의 세 단계를 문학사의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과 각각 연결시킨다. 즉 자본주의의 첫단계인 시장자본주의 단계를 리얼리즘에, 독점 혹은 제국주의 단계를 모더니즘에, 그리고 자본주의 발달의 최종단계인 후기자본주의, 즉 다국적 자본주의를 포스트모더니즘에 연결시킴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이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형식이라고 규정한다.

제임슨은 만델의 시대구분을 인용하여 현재의 후기자본주의 상황이 맑스의 분석과 상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출현한 자본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형성하고 자본이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지역에까지 엄청난 확장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국적 기업을 표면에 내세운 채 자본의 전지구적인 장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것이 문화속으로 내화되고 사회의 전영역이 자본과 그를 바탕에 둔 기술에 잠식된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비판적 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맑스가 자본주의의 해악한 특징들과 동시에 독특한 해방적 역동성을 언급했듯이 제임슨도 이를 인용하여 후기자본주의의 문화적 진화를 파국이면서 동시에 진보라고 변증법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새로운 형태의 깊이없음, 역사성의 빈곤, 새로운 감정상의 색조, 새로운 기술과 맺는 심층적인 구성관계, 비판적 거리의 말소"등을 열거한다.

제임슨이 실체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인정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한 반면, 영국의 맑시스트인 이글턴(Terry Eagleton)은 "자본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글에서 더욱 강력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을 공격한다. 그는 포스트모너니즘을 20세기 초의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이 회화적으로 결합된 후기자본주의적 문화현상으로 파악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지향하던 예술과 사회의 구분을 극복하고 양자의 융합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아방가르드의 전통을 따른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의 제도적 자율성을 해체하고, 문화와 정치사이에 가로놓인 간극을 없애고, 미학적 생산품을 전체 사회적 실천속의 비특권적 위치로 되돌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아방가르드의 혁명적 전통을 제거해버리고 회화시킨다. 그리고 이런 왜곡에 대한 역사적 의식조차도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모더니즘 작품은 자신을 사회로부터 제거해, 침투할 수 없는 자신의 공간으로 침잠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이 저항하는 부르조아 휴머니즘의 특징인 미학적 자율성이라는 환상을 재생산하고 강화시킨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작품이 진짜 하나의 상품이라면 그점을 태연하게 인정하자는 태도를 보인다. 물적인 현실과 미학적인 구조사이에서 견딜 수 없는 갈등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예술작품으로서의 후광을 한쪽으로 제끼고 예술품의 경제적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은 아방가르드 작품을 조롱하면서 이미 상품이 된 것만이 상품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리하여 모더니즘 작품이 상부구조속에서 제도화된 반면에 자신은 토대에 위침함으로써 엘리트주의에 대중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예술품이 지배질서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운명을 억지로 참기 보다는 부드럽게 적응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취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잔학한 살상을 경험하고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목격한 지식인들은 이전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현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제 역사나 실재, 그리고 재현의 가능성을 더이상 믿지 않는 그들은 이에 대한 표현방법도 그들의 선배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리얼리즘 시대의 소설에서 각 부분은 유기적 통일성을 지녀야했고, '총체성'을 구현하고 역사와 실제 세계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 그러나 모더니즘 시대의 소설은 산업사회의 발달과 새로운 문물의 출현으로 인해 정통적인 의식이 흔들렸던 당시 지식인들의 충격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보다 단순한 사회에서 살던 리얼리스트들의 기법으로는 복잡해지고 쉽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신들의 작품의 서술구조도 여러가지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 헝클어놓음으로써 소비자의 즉각적인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들이 사용한 이런 전략은 재현이나 총체성의 구현이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산업사회에 대한 대응이고, 또 자신들의 예술품이 상품으로 취급받고 자신들은 무지한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생산자로 전락시키는 자본에 대한 저항논리였다.

그러나 재현 그 자체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의 질서에 대응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소설에서는 모더니즘에서 사용된 의식의 흐름수법보다 한층 더 복잡한 시간관을 드러낸다. 이른바 전통적인 서술구조가 와해된 그들의 작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마구 얽힌 채 이야기가 전개된다.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경계는 무너진다.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결말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 소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작품의 결말을 제시했으나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서는 뚜렷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고 끝을 맺는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확고한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소설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한다. 이런 이론적 배경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소설가들은 뚜렷한 결말을 제시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가 바로 패러디이다. 진지한 주제를 다룰때에도 그것을 희화시켜 그 진지함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준다. 리얼리즘 소설과 모더니즘 소설, 그리고 동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은 그것들이 갖는 이념성을 드러내고, 통렬한 풍자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슨은 모더니스트들의 패러디와는 다른 '혼성모방(Pastich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 혼성모방을 포스트모던 문화에 가장 적합한 문화양식으로 파악한다. 혼성모방은 패러디와 유사하나 패러디가 가진 궁극적 동기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풍자적 충동이 잘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소설은 역사의 과거를 더 이상 재현할 수 없다. 단지 그런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고정관념들을 '재현'(represent) 할 수 있을 뿐이다. 실재 세계와 역사에 대한 재현이 불가능함을 느끼는 포스트모던시대의 작품들은 따라서 역사성이 빈곤할 수 밖에 없고 그 해석을 감금하고 억압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몇 가지 특징에 공통되는 요소를 꼽는다면 그것이 바로 경계의 와해이다. 어떤 절대이념이나 존재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소설에서는 기존의 모든 이분법들이 와해되는 장소가 된다. 주체와 객체, 진실과 허구, 진리와 오류, 화자와 청자, 중심부와 주변부 등등 이 모든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위에 열거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가지 미학적·기법적 장치들은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독자들에게도 제법 읽혀졌던 마르께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을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족보에 올려놓곤 한다. 물론 이 소설에서는 위에서 열거했던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주요 특징들이 모두 드러난다. 이 작품이 '환상적 리얼리즘'(magic realism)이라는 독특한 딱지를 붙이는 데 한몫을 하는 것은 바로 동화에서나 볼 수 있는 환상적인 사건들이다. 돼지꼬리가 달린 아기를 낳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담요를 타고 승천하는 등 여러 사건을 통해 마르께스는 사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이 작품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재산으로 간주하려는 이들의 의도는 오히려 정치적이다. 즉 제3세계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처럼 제3세계의 문학작품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를 발견하여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하면 제3세계문학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중심과 주변부,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경계를 와해시켰다는 증거와 자신의 빈곤한 역사성을 보완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백년 동안에 걸친 부엔디아家의 역사를 통해 마르께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전,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탈, 매판자본, 학살, 탄압 등으로 점철된 남미 근대사이다. 마르께스가 딛고 있는 땅은 남미라는 리얼리즘의 땅인 것이다. 물론 마르께스가 수십차례의 내전과 3천명의 학살에 대해 지나치게 담담하고 환상적인 기법이 오히려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마비시키고, 따라서 기존의 리얼리즘작품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은 이 작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작업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부분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작품도 역사성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근본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은 진정한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력을 가질 수 없다.

Ⅲ. 맺음말

자신과 세계를 변혁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의미의 '실천(Praxis)'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이 차용한 의미는 모순구조에 대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통찰을 결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가인 워홀의 작품은 제임슨이 상품물신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라고 옹호한 점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순현상의 표피는 드러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모순구조는 밝히지 못한다. 아니 밝힐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모순구조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존립 근거인 물신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에 칼을 들이대는 것일테니까.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그나마 실천적인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작품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모순구조의 표피를 드러낸 작품도 상품의 논리에 지배되어, 모순상황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화시킨채 전체 상품유통구조속으로 동화되어, 그 모순 자체가 상품거리가 되어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후기자본주의는 이미 전지구적인 현상이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는 우리도 이 물결을 피할 수는 없다. 물론 오늘날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질서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실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좋건 싫건 간에 그것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코앞에 이미 다가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그것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전적으로 제1세계권의 문화인 포스트모더니즘에 우리와 같은 제3세계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하는 문제이다. 또 그것이 우리 사회에 중첩되어 있는 여러 모순구조들을 설명하고 실마리를 제시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마땅히 던져져야 할 것이다. 흔히 발견되는 오류는 자본주의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발달을 인류의진보와 혼동함으로써 빚는 오류이다. 즉 물질적 풍요를 진보라고 오인하는 태도이다. 이런 오류는 자본주의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이고 따라서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인 포스트모더니즘도 역시 전단계의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보다 우월한 것이라는 그릇된 견해를 종종 이끌어낸다. 일방적인 발전도식이 갖는 이런 오류를 파악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공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우리나름의 문화 여과장치의 정립에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 글의 분량상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을 생략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국내 수용과정에서 경계해야할 부분은 설 땅을 잃어가는 국내 순수 문학파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도피처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장르 사이의 경계가 와해되고 작품의 판단기준이 열려있고 어떤 행위도 예술적 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는 국내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보며 훌륭한 방패막이를 찾은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의 과민함일까?

박 영 재
〈대학원석사3기·영문학〉

歲時錄 '코리아'는 미국의 봉인가!

세인들은 걸프전쟁을 소위 하이테크전쟁이라 일컫는다. 보튼 하나로 군사전략거점을 초토화시키는, 즉 어린아이가 오락실에서 전자오락을 즐기는 식의 전쟁을 말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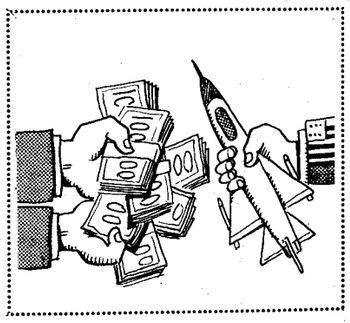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또한 CNN의 생중계를 보며 눈부신 활약상의 신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부러움과 찬사를 보냈을 것이다.

82년부터 미국과 논의되었던 한국공군의 'FX차세대전투기'사업이 최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F16기종 1백20대를 수입, 일부 공동생산하는 것으로 확정지어졌다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제네럴다이나믹스사와 맥도널드 더글러스사는 자신들의 전투기가 성능이 좋다면서 서로 판매경쟁에 열을 올렸으며, 치열한 로비전 와중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사이의 미묘한 알력과 F18에서 F16으로 번복되는등 복잡한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한 고위장성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확정했다고 한 반면, 전투기부품가및 기술이전료 증가로 당초 예상에서 다소 증액될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않는 어불성설을 자아내기도 했다.

52억달러(3조7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업에 선택된 맥도널트사는 계속적으로 누적된 자국의 적자를 줄이는데로 어느정



도 기여하고, 신데탕트에 편승한 군축논의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자회사의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세계에 대해 신무기를 수출함으로써 냉전체제의 적국이었던 소련을 견제하고 자국내에서도 일고있는 군축평화안을 무마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다.

FX차세대전투기사업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는 육군과 해군의 군수물자중 미국의 손길이 안닿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남한 정부는 우리민족의 한부분인 북쪽을 겨냥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통일이라는 미소를 띄우고 한쪽으로는 신무기를 도입하는 등 양다리걸치기작전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는 이제 민중의 세금으로 거대한 미국의 배를 부르게 하고 그들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방어막이가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한다는(?) 위정자들에게 한마디 묻고 싶다. 국제사회에서 '코리아'는 영원한 미국의 봉으로써 자리잡으려 하는가!

응진은 우리 문화의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모범생보다 삶의 모험에 나서서
기존의 낡은 율법과 권위에 도전하는 싸움을 서둘러라"
— 고은 에세이 中에서

高銀 잔작 에세이
얼마나 나는 들에서 들로 헤매었던가

한라산을 바라보기에 아주 좋은 자리였다.
나는 시를 썼다. 그러면서 홍차를 마셨다.
햇빛에 비친 아주 맑은 홍차의 빛깔.
나는 그 빛깔에 황홀해 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한 모금씩 마셨다.
그런데……

- 「잠들지 않는 눈이여」 중

그림없는 그림책
최인석 최성각 김만옥 김인숙 유순하 전진우 김춘복 윤정모 현기영
오성호 엮음

- 애, 보조 미용사.
넌 꼭 아줌마라고 하더라, 무식하게.
내가 어디 아줌마로 보여?
사모님도 있고, 혼해빠진 선생님도 있잖아.
아줌마가 뭐니, 아줌마가.
- 어머, 아줌마 미안해요. 아니 사모님!

- 최성각의 「축제의 밤」 중

송언 연작소설
新악동전

라어카 위의 물건들은 한낮을 졸고 있었다.
나는 어슬렁어슬렁 시장통을 휘돌았다.
만병통치약을 팔기 위해 무료히 시간을
죽이고 앉아 있는 무면허의 늙은 약사.
"할아버지,
요즘은 만병 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내 어린 삶의 끝」 중

김영현 최인석 정만진 김한수 이승우 김향숙
하정일 엮음
성장

나만이 울고 있다.
그것은 나의 유년기의 끝을 알리는 눈물,
성장의 고통을 알리는 눈물,
이 세상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최초로 예감하는 눈물이었다.

- 최인석의 「그림자 敎室」 중

주식회사 응진문화
영업부 : 522-1671~3, 522-0442